

보험계약법 24년 손해사정사 1차 기출문제 총평 및 출제경향

기존 보험계약법 시험은 대략 통칙에서 40%. 손보 통칙에서 15%. 인보험 통칙에서 5% 등 통칙에서 60%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었는데, 24년도 시험에서도 통칙(16문항) 40%, 손보통칙(4문항) 10%, 인보험 통칙(8문항) 20% 등 통칙(총28문항)에서 대략 70%정도 출제되어, 이론이 주가 되는 통칙에서 다수가 출제되었으며, 또한, 상법 조문이 명기되어 있는 11번 문제나 30번 문제의 경우 등에서 출제자의 의도파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다소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면, 손보 각론(총 6문항)에서 15%, 인보험 각론(총6문항)에서 15% 등 각론에서 30%정도 출제되어 각론의 문제 비율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인보험의 비중(총35%)이 손해보험(총25%)보다 다소 높아져서, 점차적으로 인보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보 각론에서는 해상.책임.보증보험 등에서 15%정도 출제되었으며, 인보험에서도 15%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손보각론은 대체로 평이하였으나, 통칙(인.손보통칙 포함)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 등이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있었지만,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각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해상보험에서 3문제, 책임보험에서 2문제, 책임, 보증보험에서 각각 1문제 등 총 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에서 6문제가 출제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각론에서는 인보험이 손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통칙을 포함하면 인보험의 비중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20문제가 출제되어 전년도와는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50%이상 출제되어 판례공부의 중요성을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판례 및 법조문에 대한 조문이해 및 용어해설 등 기본이론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사 김석주